

## 복현장학회 설립 취지문

저는 여러 해 동안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후배가 있다면 나눠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경북대와 후배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던 중 장학회 설립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저는 복현장학회를 설립하여 물심양면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학생들이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이 장학회가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후배들 역시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뭇가지에서 여러 개의 가지들이 뻗어나가듯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나가길 희망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부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닌, 이 나무가 건강하고 튼실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가꾸어갈 동료로 구하는 마음입니다. 후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5년 2월 24일

복현장학회원 박철상